



변화하는 우리 대학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가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모습은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정통한 인재, 다학문적, 다문화적 지식을 겸비하고, 세계를 무대로 사업기회를 창출하고 세계를 품는 한국인이다. 1997년 '국제 전문인력 양성 국책 대학'으로 선정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과 지역학 연구기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외국어 교육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화를 선도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부산외국어대학교의 "대학교육의 Global Standard화"를 알아본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대학 총장의 리더십

“위기를 기회로…

대학교육의 Global Standard화”

정경만 교수 | 부산외국어대 회계·세무행정학부 교수

조직 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 조직문화가 변하고, 성과가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대학교 유선규 총장님이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다. 2007년 3월 취임한 유 총장은 지방대학의 한계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우리 대학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취임 즉시 25년 숙원사업이었던 캠퍼스 이전을 가시화 시켰고, 대학의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양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교육의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2.5대1이었던 입시경쟁률이 2년 만에 4.1대1로 뛰었고, 신입생 충원율 100%, 수능 3등급 이내 우수 학생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과감한 정책추진과 솔선수범의 리더십으로 노력만 하면 지방대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교수, 직원, 학생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동목표를 향해 매진하도록 하였다.

교육혁신 - 글로벌 인재양성

“지난 6월 4일 오후 4시 10분 부산외대 A616호 강의실. 20여 명의 학생이 미국인 교수로부터 ‘세계지리’ 영어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다. 영어로 질문도 하고, 활발하게 토론도 한다. 바로 옆 A615호 강의실에는 2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교학’ 영어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학생들은 내년도에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대학으로 가서 각자 자기 전공을 공부하게 된다. 졸업할 때는 그 대학교와 부산외대로부터 각각 학사학위를 받는다.” 요즈음 부산외대 캠퍼스의 한 단면이다.

해외대학 복수학위제 :

2년은 부산외대, 2년은 해외대학

유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 특히 지방대학이 살아남는 첩경은 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라고 선언하고, '입학 후 2년은 부산외대에서 공부하고, 2년은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여 졸업 때 2개의 학위를 동시에 받는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일명 2+2제도)'를 영어권으로 확대추진하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가고 있다. 2002년부터 아시아권 몇몇 대학과 추진해온 '2+2제도'는 교류협정 대학과 교과과정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편성된 교육과정을 부산외대에서 2년간 원어로 수강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협정대학이 상호 인정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기존의 2+2제도와는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제도이다. 학생의 외국대학 등록금은 협정에 의하여 책정된 금액을 대학이 부담하며, 학생은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현재 9개국 23개 외국대학과 복수학위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금까지 일본, 베트남,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7개 국가에서 부산외대생 172명이 과정을 마쳤고, 외국인 157명이 부산외대에서 과정을 마쳤다. 현재 부산외대생 82명이 해외대학에서, 외국인 61명이 부산외대에서 '2+2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부산외대는 장차 30개국, 50여 개 대학에 재학생의 30%를 파견할 예정이다. 작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새크라멘토)등 5개 대학, 호주 퀸즐랜드대학 등 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중에는 영국 3개 대학과 협정이 체결될 것이다. 미국 앨라배마주 트로이대학의 경우 현대자동차 미국공장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추가 협의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입시부터 우수학생을 자율진공학부으로 선발하여 기본과목을 원어강의로 이수시킨 후 자신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전공분야와 외국대학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중심교육을 새로운 차원에서 구현

하고자 관련제도 정비 및 재원마련에 유 총장은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다양한 해외문화 체험 :

오프캠퍼스(Off-campus) 해외프로그램 확대

이질적인 문화를 공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현지에서 체험하고 오는 것이며, 유능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의 첩경이다. 유 총장은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 1달(또는 1학기) 이상 머물면서 수업도 듣고 현지문화를 익히면서 다양한 사고력을 형성시키기 위해 오프캠퍼스(Off-campus) 해외프로그램을 강조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단기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외문화와 현지의 사고방식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산외대 학생들은 필리핀 빈민촌에 집을 지어주고, 수리해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야간에는 현지인과 함께 영어공부를 한다. 또한, 매년 봄이 되면 500여 명의 학생이 일본 대마도 쓰레기 수거작업을 한다. 대부분 한국에서 떠내려간 쓰레기들이다. '우리 쓰레기는 우리손으로 치운다'는 소박한 마음이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교류도 소박한 마음과 활동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산교육의 장이 되고 있으며, 민간외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문화체험, 해외현지조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학연수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해외문화체험은 방학 때마다 6-8개 팀을 세계 각지로 파견한다. 계획서제출, 발표, 심사 등의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 후 현지교육을 하여 파견하고, 귀국 후에는 보고서 제출, 공개보고회를 가짐으로써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고 있다.

멀티플레이어 양성 : 융합교육의 확산

지난 20년간 일본 및 유럽 대학교육의 변화과정,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요구되는 인력의 자질을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학과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융합교육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과단위 교육을 융합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산외대는 융합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장치로 몇 가지 독특한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외대의 대표적인 융합 교육 과정으로 GLE(Globalized & Localized Experts)양성과정, ILE(International Language Experts)양성과정 들 수 있다. 2학년 진급시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과정에 따라 혹독하게 공부시켜 배출하는 양질의 졸업생은 기업체와 재외공관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부산외대 안에 있는 또 다른 대학이라 할 수 있는 GLE와 ILE과정 운영을 통한 교육 노하우는 일반 학과 교육개편 및 운영에 전파되어 교육개혁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 또한, 부산외대는 영어는 기본,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우도록 하며,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전과 또는 복수전공을 희망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지난해 복수·부전공 신청자가 재학생의 72%로서 학생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융합교육으로의 완전개편을 위해 유 총장은 교수의 교과목 개설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학경쟁력제고의 핵심은 교육과정 개혁이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라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유 총장은 Education Control Tower를 설치하여 교과목 개설 또는 폐지 권한을 부여하고 학과 이기주의 또는 교수중심의 교과목개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수가 원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과 사회가 원하는 수업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교수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융합교육을 통하여 대학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유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실용학문연구

유 총장은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국가발전 전략수립 또는 실행, 기업체의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학문 연구를 강조한다. 따라서 순수학문 연구 이외의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내는 교수를 적극지원하고, 교수 개인보다는 부설연구소 중심으로 지원하여 실용적인 연구지원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도 인문한국지원 사업에 지중해연구소가 선정되었고, 2008년에는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가 선정되어 향후 10년간 1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의 연구성과는 중남미지역 자원개발, 관광, 기업진출을 촉진하는 기반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7년 전부터 부산외대가 추진해온 중남미 한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중해연구소는 아랍을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뿐만 아니라 자원

보고인 사하라사막 아래쪽 아프리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자원외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동 북동부의 자원보고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튀르크메니스탄의 자원확보를 위한 교류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유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 국가전략사업추진과 대학의 역할에 대한 유 총장의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국제화시대 침병 - '대학의 제4역할'

12세기 이탈리아에 근대적 의미의 대학이 생긴 이래 교육과 연구는 대학의 움직일 수 없는 두 가지 중심이었다. 최근 들어 일자리가 중요해 지면서 취업지원기능, 더 나아가 인력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경력(career)을 개발해 주는 인력개발 기능이 대학의 제3의 역할로 점점 주목받고 있다. 유 총장은 여기에 제4의 역할 즉,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유 총장은 지난 2월 초 동티모르를 방문하여 대통령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 나라 노동부 및 국립대학과 한국어교사 수급협력 등 몇 가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450년간 외세의 지배에 시달리다 2002년 독립은 하였지만 독립투쟁에 우수 인재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재양성이 국가중요 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티모르 교육제도 정비를 위해 우리 대학이 지원하기로 하였다.

동티모르는 산유국으로서 우리 정부와 관련업체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동티모르와의 협력관계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현지 지도층에 접근하기란 쉽지 않다. 동티모르는 수백 년을 외세에 시달린 땅이기 때문에 대규모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해도 의심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공신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국제적인 매개자로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학이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고 유 총장은 생각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 속에서 대학도 전통적인 역할들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대학이 한국의 세계화와 세계의 한국화를 위해 민간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때이다. 유 총장은 부산외대의 '동티모르 프로젝트'가 대학의 새로운 역할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표본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들이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하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최고의 교육환경-캠퍼스 이전

유 총장은 캠퍼스는 대학발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부임 즉시 담보상태에 있던 부산외대 25년 숙원사업인 캠퍼스 이전을 가시화시켰다.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으로 2011년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고의 캠퍼스를 위해 유 총장은 국내외 50여 개 대학을 벤치마킹하였다.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지역주민들에게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손색이 없는, 부산시민이 자랑하는 캠퍼스 조성은 유 총장의 꿈이기도 하다.

유비쿼터스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센터는 18개국 언어교육과 상시 문화공연을 통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주민의 세계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여나감과 동시에 각국 문화원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 간의 문화교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원 속에 교육기능이 들어있는 캠퍼스, 이산화탄소(CO2)배출 '0' 캠퍼스"를 지향하여 바람, 햇빛, 지열,



태양열,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캠퍼스(ECO-Campus)의 모델로 조성하고, 유지관리비를 30% 이상 절감함으로써 캠퍼스 이전 후 대학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새로운 리더십 - 신속한 문제해결, 말보다 행동, 구성원에 대한 세심한 배려

‘저는 부산외대를 우리나라 최고의 일류대학으로 만 들고 싶습니다. 굿은일은 제가 맡을 것이니 교수님들은 학생교육과 연구에 전념해 주시고, 직원선생님은 교수와 학생을 가족같이 보살피고 지원해 주십시오.’ 유 총장이 평소 교직원에게 하는 말이다.

학교발전을 위한 명확한 비전제시와 솔선수범하는 총장의 열정,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따뜻한 배려가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유 총장은 평소 큰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조용조용하게 말하면서도 카리스마가 묻어난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면 참모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말없이 해결부터 한다. 휴일과 밤낮이 없고, 서울, 부산, 해외가 없다. 대학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디에서건, 누구든지 만나 총장의 뜻과 의지를 전하고 진지하게 의논한다.

유 총장은 거창한 구호나 화려한 말로 포장된 계획을 좋아하지 않는다.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실행계획을 선호하고, 수립된 계획은 반드시 실행한다. 참모보고에 대한 판단은 1분 이내에 마무리한다. 그럴수록 참모들은 정확한 보고를 위해 심사숙고하고, 면밀한 검토를 한다. 또한, 유 총장은 참모진을 신뢰한다.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얼굴보고 결재한다. 구성원에 대한 무한한 신뢰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모두가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마무리

대학은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는 것이 유 총장의 생각이다. 따라서 각종 의사결정에서 우수학생을 길러내는 데 유용한가 아닌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사운영, 시설확보, 예산집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출장까지도 그렇게 함으로써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모든 구성원의 의지를 한곳으로 모을 수 있었다.

부산외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향한 노력은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추구해야 할 변화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부산외대는 남산동 캠퍼스 개교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교육혁신방안을 새로운 대학교육 모델로 정착시키고자 유 총장과 구성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 총장을 중심으로 한 부산외대의 노력은 입학자원감소, 교육시장개방 등 우리나라 대학에 닥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우리들은 믿고 있다. ■

필 / 자 / 소 / 개

정경만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서강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회계학회 이사, 공인회계사시험출제위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평가위원장, 부산외대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부산외대 회계세무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연결재무제표론(공저)』, 『회계원리(공저)』 등이 있으며, “비이익회계정보의 정보내용에 관한 실증연구”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기업가치평가, 회계정보시스템, 신용평가 등이다.